지난해 건설업체 부도율 0.84%, 12년만에 최저

80년대말 신도시 건설 때와 같아, 건설업체수도 증가세
건설경기 호조, 원활한 자금조달, 부실업체 대거퇴출 영향

주택건설 부문을 위주로 한 건설경기가 호황을 보인 지난해 건설업체 부도율이 지난 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373개사, 전문건설업 43개사 등 416개사로, 부도업체가 508개사에 이른 2001년보다 92개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 건설업체가 4만9천308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부도율은 0.84%. 2001년(건설업체수 4만7천533개사)의 1.07%보다 0.23% 낮아진 수치다.

특히 지난해는 월별 부도율도 0.05-0.09%로 0.1% 미만을 유지했는데 건설업 부도율이 1%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 5대 신도시 건설로 건설업이 호황을 누린 지난 1988년(0.88%), 89년(0.70%), 90년(0.53%)에는 부도율이 1%를 훨씬 밑돌았다.

건설업 부도율은 외환위기가 닥친 98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99년부터 급락,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91년 1.29%, 92년 1.67%, 93년 2.56%, 94년 2.40%, 95년 4.04%, 96년 3.16%, 97년 4.86%로 점차 높아지다 98년 최고치인 7.01%를 기록했으며 이후 하락세를 보여 99년 1.34%, 2000년 1.46%, 지난해 1.07%로 떨어졌다.

이처럼 부도율이 급락한 것은 지난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였고 △저금리로 자금조달 여건도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며 △건교부가 건설업 등록기준 등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대거 퇴출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경기의 호조의 영향으로 건설업체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말 6천760개사에 불과했던 건설업체 수는 95년말 2만2천579개사, 2000년말 3만9천801개사, 2001년말 4만7천533개사, 지난해말 4만9천308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연도별 부도율(%)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2년
0.88	0.70	0.53	1.29	1.67	2.56	2.40	4.04	3.16	4.86	7.01	1.34	1.46	1.07

건설업체 연도별 수치(개사)

90년	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6,760	22,579	39,801	47,533	49,308

■ 물과 인체 ①

돌은 생명체 생육·번성의 근원

지금까지 인류는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물을 통해서만 이용해왔다. 그러나 물에서는 산소열과 음이온파장, 원적외선 파장이 공존하는 천연에너지 파워 파동과 파장을 흡수하지 못한다.

이러한 파동과 파장을 사람이 직접 물에서 흡수하면 세포조직과 뇌세포, 또는 뇌전자회로를 활성화시켜 인체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물에서 나오는 천연에너지가 37℃의 체온에서 일으키는 화학반응 및 공명현상 자음은 건강증진이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그러한 천연에너지를 이용해 주거용 건강물을 만드는 만간요법의 하나로 에너지가 나오는 돌에 대한 의학요법을 경험학으로 논하고자 한다. 돌에서는 미지의 에너지 전자파가 나오는데 이 전자파는 인체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천연전자파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중력추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땅(흙)과 [illegible]대양(빛)은 만미의 생명력을 부여받아 온갖 생명체가 생[illegible]하는 근원이다."

과거 [illegible] 세월이 지[illegible]의 생명력은 자연 감소[illegible]되었다. 근대[illegible]지면서 무분별한 자연훼[illegible]경의 파괴와 변화로 심[illegible]처했고 생태계의 이상변[illegible]의 원인도 일부 [illegible]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생명 [illegible]킬 수 있는 제2의 생명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존재하는 자연계에서 자연에너지의 재구성으로 생명력을 보존, 유지 또는 회복시켜줄 수는 없는 것일까? 과연 생명체의 보존이나 유지를 위한 매개체의 구성은 불가능한 것일까?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 결과 지표층의 X.Y(각종원소) 물질들의 조합, 물 에너지 전자파 파동, 지구 [illegible]의 근원인 지자기 파장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illegible] 우리 생명체가 태초로 회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구 또한 자연계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다는 의미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런 노력과 일환으로 [illegible]는 생명체의 보호 및 기능회복을 위한 건강 건축소재를 엄선, 또는 생산하여 이를 응용한 생명에너지 방사 [illegible]건축자재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인류의 오랜 염원[illegible]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llegible]와 인체' 를 앞으로 연재해 나가면서 건강 건축문화를 [illegible]로, 새로운 건축 [illegible]재의 장을 [illegible]가기로 한다.

㈜석산터 에디팀
부설 화석/원석/파동에너지 연구소
박용진(대체의학박사·한의학박사)

'얼음 위에도 길을 닦는다'

미국 과학기지서 남극점까지 1천6백킬로
광케이블 부설, 과학장비 수송 기대돼

현재 남극에서는 눈을 치우고, 빙도저로 거친 얼음표면을 다듬고, 그레바스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남극 해안의 한 미국 기지로부터 남극점까지 총연장 1600㎞의 도로건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음 위의 도로'는 앞으로 몇 주 뒤면 로스 빙붕을 가로질러 남극횡단산지(Transantarctic Mountains)에 다가갈 것으로 보이며 '남극뉴스'의 편집장이자 과학자인 빌 스파인들러에 따르면 2년내에 아문센스콧기지까지 뚫릴 것이라고 한다.

'얼음 위의 도로' 건설은 5년안에 끝내야 하는 아문센스콧기지까지의 광케이블 부설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아문센스콧기지는 각종 과학 프로젝트 수행으로 관측장비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통신위성의 통신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미국본토로 송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케이블 부설은 그 해결책인 셈으로 여기에는 2억5천만달러가 투입된다.

과학자들은 '아이스 큐브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피가 큰 각종 과학장비의 수송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스 큐브는 우주 중성미자 빔을 연구하기 위해 남극에 세워지는 천체관측소. 이를 위한 탐지기가 기지 아래 깨끗한 얼음에 1입방 킬로미터에 산재하여 설치된다. 이 시설은 5년 동안 건설되며, 본격 가동되면 하루에 20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산될 예정이다.

전적으로 항공편에 의존해온 물자 수송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를 이용할 경우 수송량이 제한되고 기상에 민감한 항공편의 단점도 극복될 전망이다.

1200만 달러 규모의 이 도로건설을 재정지원하고 있는 과학재단의 한 관계자는 "도로가 건설되고 나면 유지작업으로 눈을 치우고, 크레바스를 감시하며, 봄철에는 얼음의 이동을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갈라진 틈의 경우 매년 변화가 심할 것 같지는 않으나 항상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파인들러는 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도 3000미터 높이의 기지까지 20일이 소요되며, 되돌아가는데는 보다 짧은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용차량은 느린 속도의 연료와 장비를 견인하는 무한 궤도식 트랙터. 단독 이동은 불허되며 도로가 완성되면 남극 기지는 매년 여름 3차례의 왕복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도로건설에 관대하다. 도로가 자원개발을 위해 포장될 염려는 없기 때문. 현재 남극은 남극조약에 의해 자원개발이 금지되고 있다.

휠체어가 다니기 쉬운 자갈포장재 '자갈 BF'

일본 미쯔비시수지(주) 자체제작 나서

자갈재를 휠체어와 자전거가 다니기 쉽도록 한 보장재 '자갈 배리어 프리 BF'가 발매되었다.

일본 미쯔미시수지 주식회사는 지난 1월 24일 시사와 고원 등 자갈을 까는 장소에 휠체어와 자전거의 타이어가 빠지는 것을 막고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타입의 자갈 포장재 '자갈 BF'의 발매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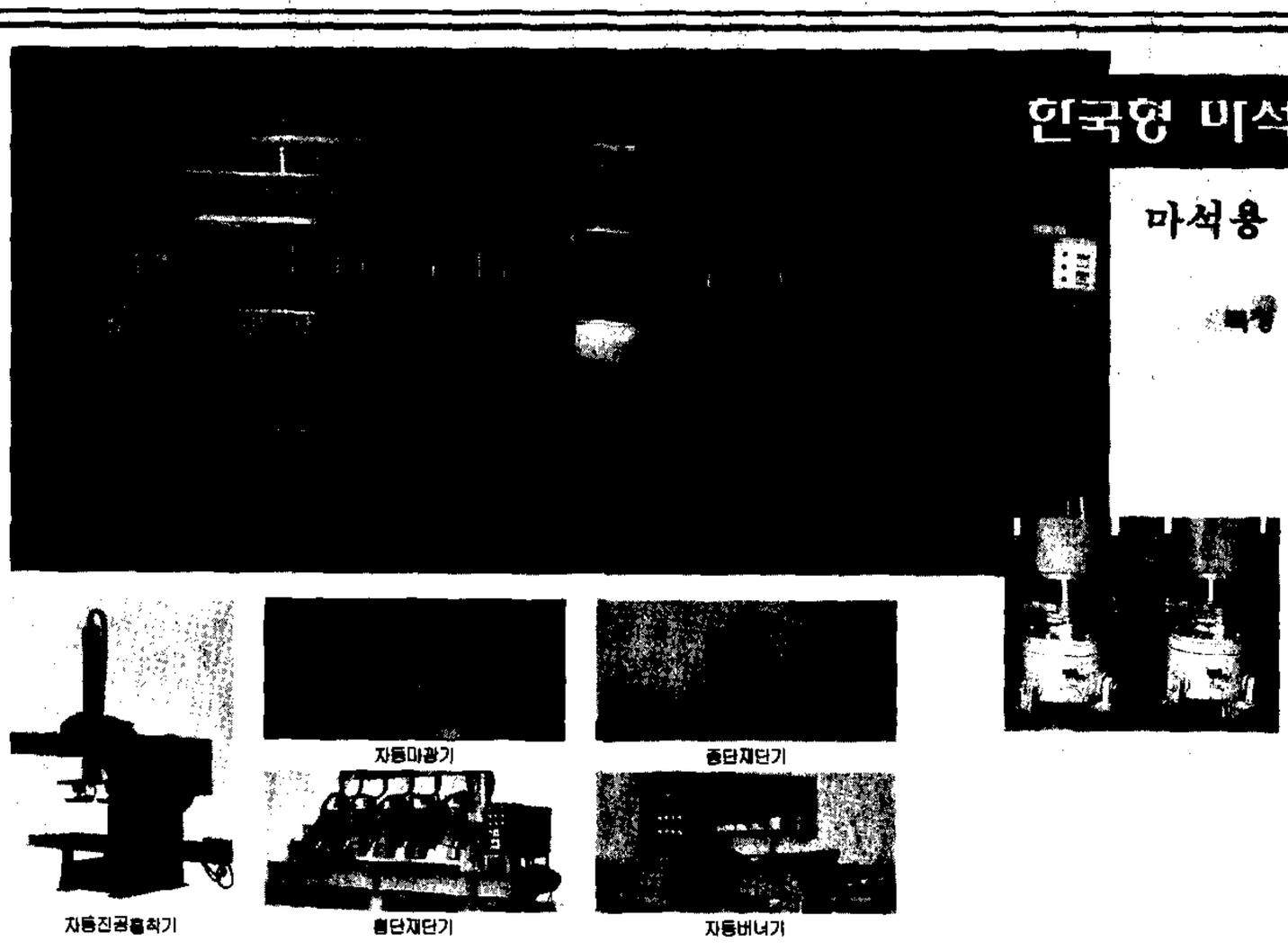
미쯔비시수지는 환경녹화를 컨셉으로 환경토목자재제품의 개발 및 판매에 힘써온 업체.

1998년 발매한 잔디보호재를 시작으로 자갈을 깐 주차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갈 보장재 등을 선보여왔다.

이번에 발매된 '자갈 BF'는 땅 위에 부직포를 깔고 제품을 부설, 부속 판을 타설해 접합시킨 후 자갈을 충진하는 보장재.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으로 달릴 경우에도 자갈에 타이어가 빠지는 것을 막아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으며 △자갈이 패이거나 흩어지기 어렵고 △투수성이 우수해 빗물처리용의 하수도공사 비용, 일시적인 저수탱크의 공사비용을 줄이며 △일조에 의한 표면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부직포에 의해 자갈의 침강을 막고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방지하는 점이 특징이다. 시공이 간단하며 블록 본체에는 폴리프로필렌의 리사이클 재를 사용해 사람과 환경을 고려했다.

지금까지 '자갈 BF'는 해외에서 수입되어 일본 내에서 시험적으로만 판매되었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배리어 프리화 촉진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일본에서 자체 제작, 1월 24일부터 발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사원, 공원의 공공시설, 전시장, 캠프장, 집합주택 등의 주차장, 광장 보행로, 골프장의 카트용 도로 등을 위주로 3,200엔/㎡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국형 마석형 마광기 헤드 탄생!

마석용 마광기는 헤드가 생명

■ 당사는 한국형 마석용 마광기 헤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발명 특허출원함과 동시에 구조가 단순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고장이 적은 강력한 마석용 마광기로 개발해냈습니다.

■ 성능 및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자동운전을 위한 판재 위치 검출을 종래의 개별감지식기간 외부 제어 방식 대신 원터치식 거리내부 제어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서 구조적으로 간단해졌을 뿐 아니라 판재를 그 곳에서 감지하므로 자르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제품손실이 편리합니다.

DM 동명산업기계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동리 394-4번지
TEL: (043)269-0478, 0411, 0412
FAX: (043)269-0479